

[위피백과]

수능국어_이십세기

: 1994~2000 기출 선별

<6주차 문제+해설>

위피_심프 ver.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9. 수능

21세기를 눈앞에 둔 인류에게 세계화는 커다란 역사적 전환의 의미를 갖는다. 세계화와 관련된 '무한 경쟁', '국가 경쟁력', '시장 개방'과 같은 논의 또한 개별 국가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제화가 단순히 개별 국가 간의 교류가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면, 세계화는 교류의 양적 확대를 넘어서 개별 국가들의 사회 구조와 국가 간의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우선 경제 영역의 세계화는 국가 간의 교역, 투자, 통신, 교류 등이 확대되어 상호 의존 관계가 증대되고, 국제적으로 다자 간의 협의, 조정, 협력이 강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 영역의 세계화에서 최근 주목되는 것은 초국적(超國的) 금융 자본의 비약적인 성장이다. 초국적 금융 자본은 1990년대 후반 현재 세계 무역 거래의 수십 배에 달하는 규모의 금융 거래를 주도하고 있다. 더구나 그것은 전 세계적 연락망과 전략적 제휴 관계를 통해 각국의 국민 경제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초국적 조직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 또한 세계화의 중요한 측면이다. 기존의 개별 국가 틀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담당하기 위해 결성된 초국적 조직은 그 중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 국제연합(UN),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정부간 조직 이외에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그린피스(Green Peace) 등과 같은 비정부 조직(NGO)의 비중 또한 커지고 있다.

한편 문화 영역의 세계화도 주목해야 할 대상이다. 문화의 생산, 분배, 소비가 국제적인 차원의 연결망 속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개별 국가들의 문화 및 생활 양식이 전 세계로 신속하게 퍼지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만들어진 뉴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대중 음악,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이 세계 시장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국에 대한 문화적 종속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 질서의 급속한 재구조화는 한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세계화가 우리 삶의 질과 구조를 크게 바꿔 놓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 자본의 세계화와 문화의 세계화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초국적 금융 자본의 활동은 최근의 외환 위기를 낳았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였으며, 그 결과로 등장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 정책 관리는 우리 국민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서구의 음식, 의류 문화는 물론 미국 할리우드 영화와 팝 뮤직으로 대표되는 대중 문화의 유입은 우리의 일상 의식과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화 유입의 가속화에 따라 우리의 민족 문화는 급속하게 변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에 대해 우리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화는 기존의 민족 단위로 이루어지던 사회 생활을 새로운 차원으로 재편하는 것이므로, 우리들은 세계화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민족주의적 시각을 지녀야 할 것이다. 여기서 개방적 민족주의란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세계화 현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개별 국가 사이의 불평등은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정치, 경제 및 문화적 종속을 거부하고,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그리고 인본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기존의 국가 이기주의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개별 국가 간

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이러한 개방적 민족주의야말로 앞으로 지역적, 지구적 호혜 평등의 질서 수립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세계화 과정에서 초국적 조직의 비중이 강화된다.
- ② 세계화 과정에서 초국적 금융 자본의 역할이 증대한다.
- ③ 개방적 민족주의는 개별 국가 사이의 불평등을 거부한다.
- ④ 세계화를 통해 민족 단위의 사회 생활이 새롭게 재구성된다.
- ⑤ 세계화로 인하여 개별 국가의 고유한 생활 양식이 고착된다.

2. 밑글의 주장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 ① 민족주의는 세계화를 지향한다.
- ② 세계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이다.
- ③ 민족주의는 바람직한 국가 이념이다.
- ④ 세계화는 개별 국가들의 이해와 대립한다.
- ⑤ 세계화는 개별 국가들의 합의에 의해 추진된다.

3. '세계화'에 대한 윗글의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러 가지 상반된 인식을 대비시키고 있다.
- ② 부분적인 현상에서 유추하여 일반화하고 있다.
- ③ 유사한 이론들과 비교 분석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 ④ 여러 분야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고찰하고 있다.
- ⑤ 여러 가지 정의를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있다.

4. 윗글의 글쓴이의 태도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 ① 선진국에 대해 너무 적대적이야.
- ② 국가간의 경쟁 현상에 대해 패배주의적이야.
- ③ 초국적 조직의 성장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군.
- ④ 시장 개방에 대해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어.
- ⑤ 개방적 민족주의에 대해 적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어.

[5~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0. 수능

우리는 역사상의 모든 인간 사회들이 물질적 풍요라는 가치를 추구했을 덕으로 ㉠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은 공동체적 유대와 평화로움을 중시하는 칼라하리 사막의 수렵 채집민인 쿵 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최소한의 식욕을 해결하면 각종 놀이와 의례 행위를 통해 정신적인 즐거움과 화목한 사회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쿵 족의 태도는 사바나 생태계에서 경험적으로 체득한 지혜에서 나온 것이다. 즉 이들은 건기와 우기의 생태적 변화 과정이나 먹잇감의 이동 경로, 식용 식물에 대한 지식 등에 기초하여 노동을 배분한다. 또한 자신이 속한 씨족 집단의 구성원들과 생산물·사냥 도구를 공유함으로써 궁핍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응 체계를 발전시켰다. 인간은 생존하기 위하여 우선 먹어야 하지만, 얼마나 먹을 것인가 하는 것은 문화에 따라 다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무분별한 부의 추구가 한 문화를 완전히 파괴시킨 경우를 아프리카의 유목민인 새홀 족에서 발견할 수 있다. 1920년대부터 인구 증가로 고통 받던 이 부족은 1960년대 중반 평균 강수량보다 많은 비가 내려 목초가 풍부해지자 경쟁적으로 가축의 수를 크게 ㉡ 늘려 개인적인 이익을 ㉢ 추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날씨가 건조해지자 그들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가축들을 방목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의 터전인 목초지는 서서히 사막으로 변하여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문화적 적응 방식에 담겨 있는 생태 체계와의 조화라는 원리가 개인적인 욕구 추구로 대체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하겠다.

부의 축적이 물질적인 안락함과 편리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많은 인류학자들이 보고하고 있다. 북아메리카의 쿼퀴틀 인디언은 20세기 초까지 낭비적 소비가 이루어지는 포틀라치라는 축제를 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더 높은 위신과 권위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손님을 초대하여 많은 선물을 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귀중한 재화를 파괴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집을 불태우기도 하였다. 현대인의 눈에는 낭비적이고 파괴적으로 보이는 이 축제는 자연 자원이 풍부하고 사회적 신분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조건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또한 정치적 위신과 권위를 얻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 여기는 문화를 통해 부의 분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뉴기니아 마링 족의 대규모 돼지 도살 축제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들 수 있다. 마링 족은 사육하는 돼지의 수가 곧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권위를 ㉤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평소에는 정성껏 돼지를 돌보고 돼지고기를 식탁에 올리지 않는다. 이러한 금기가 깨어지는 것이 카이코라 불리는 축제 기간이다. 이 축제는 돼지의 수가 늘어나 먹을 것이 부족해지고 노동력이 달려서 돼지를 돌보기 어려워지는 시기에 열린다. 축제가 열리면 평소에 먹기 어려운 돼지고기를 싹껏 먹고 동맹 부족의 사람들을 부러 돼지를 선물한다. 이를 통해 전쟁에서의 동맹 세력을 확보하고, 노동력에 여유를 얻으며 생태계의 균형을 복원한다.

이상의 사례들은 물질적 풍요의 추구가 한 문화의 중심적 가치가 아닐 수 있고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다양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각 문화의 제도나 관습들이 그 나름의 역사적·경제적·생태적 조건 등을 기초로 발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기준으로 문화의 우열을 정한다든지, 어떤 문화 요소의 좋고 나쁨을 논하기는 어렵다.

5. 윗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신 문화의 중요성 강조
- ② 다양한 문화와 그 가치의 인정
- ③ 우리 문화의 고유성에 대한 재인식
- ④ 물질적 풍요의 고유성에 대한 재해석
- ⑤ 서구적 가치의 지속적 추구에 대한 재평가

6.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여러 개념을 주관적인 기능에 따라 분석하고 있다
- ② 역사적 관점에서 대상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 ③ 여러 사례를 들어 주장하는 바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
- ④ 여러 이론적 입장을 대비시켜 주장하는 바를 개선하고 있다.
- ⑤ 주장하는 바를 유사한 경험에 빗대어 순차적으로 밝히고 있다.

7.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물질적 풍요에 대한 관점은 문화에 따라 다르다.
- ② 부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문화의 존속에 위협이 될 수 있다.
- ③ 낭비에 가까운 소비는 공동체 존속에 위협을 가한다.
- ④ 물질적 풍요는 생태계 균형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 ⑤ 한 문화에 대한 가치 평가는 불가능하다.

8. 밑글의 주장과 거리가 먼 진술은?

- ① 대중 가요도 '고급 문화'가 될 수 있어.
- ② 사람에게 따라서는 채식만 하는 경우도 있어.
- ③ 중·고등 학생들이 이성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해.
- ④ 사주팔자를 보는 것도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야.
- ⑤ 청소년들이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어.

9. 다음 중 ㉠~㉣와 바꾸어 쓸 수 없는 것은?

- ① ㉠ : 간주(看做)한다
- ② ㉡ : 증가(增加)시켜
- ③ ㉢ : 추구(追求)하기
- ④ ㉣ : 인식(認識)하는
- ⑤ ㉤ : 등장(登場)시키는

[10~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0. 수능

(가)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

㉠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아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이링공 더링공 햅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쁘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작자 미상, 「청산별곡(靑山別曲)」-

(나)

슈국(水國)의 7을 히 드니 고기마다 슬져 일다
달 드러라 달 드러라

㉡ 만경당파(萬頃澄波)의 슬7지 용여(容與)햅자*

지국총 지국총 어스와
인간(人間)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추(秋)·2〉

그러기 떳는 밧기 못 보던 피 뵈노고야
이어라 이어라

낙시질도 햅려 니와 추 | (取)햅 거시 이 흥(興)이라
지국총 지국총 어스와

석양(夕陽)이 뷔이니* ㉢ 천산(千山)이 금슈(錦繡) | 로다

〈추(秋)·4〉

-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 용여햅자 : 마음대로 하자, 안겨 보자

* 뷔이 니 : 비치니, 눈이 부시니

(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으로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뷔인 밤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얇은 줄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벼개를 돌아 고이시는 곳.

-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아란 하늘 빛이 그림어

함부로 쓴 화살을 찾으려
풀섧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전설(傳說)바다에 춤추는 ㉥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의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 벗은 안해가
따가운 해스살을 등에 지고 이삭 짓던 곳.

-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가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 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 정지용, 「향수(鄉愁)」-

(라)

하이얀 모색(暮色)속에 피어있는
산협촌(山峽村)의 고독한 그림 속으로
파-란 역등(驛燈)을 달은 마차가 한대 잠기어 가고,
바다를 향한 산마룻길에
우두커니 서 있는 전신주 우엔
지나가던 구름이 하나 새빨간 노을에 젖어 있었다.
바람에 불리우는 작은 집들이 창을 내리고,
갈대밭에 묻히인 돌다리 아래선
작은 시내가 물방울을 굴리고

안개 자욱한 화원지(花園地)의 벤치 우엔
한낮에 소녀들이 남기고 간
가벼운 웃음과 시들은 꽃다발이 흩어져 있다.

외인 묘지(外人墓地)의 어두운 수풀 뒤엔
밤새도록 가느란 별빛이 내리고,

공백(空白)한 ㉦ 하늘에 걸려있는 촌락(村落)의 시계가
여윈 손길을 저어 열 시를 가리키면
날카로운 고탕(古塔)같이 언덕 우에 솟아 있는
퇴색한 성교당(聖教堂)의 지붕우에선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 「김광균, 외인촌(外人村)」-

10. (가)~(라)의 시적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청산'은 화자가 지향하는 곳이다.
- ② (나)의 '슈국'은 화자의 소망이 충족된 세계이다.
- ③ (나)의 '뫼'는 화자에게 흥취를 주는 공간이다.
- ④ (다)의 '넓은 별'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뜻한다.
- ⑤ (라)의 '산협촌'은 화자의 외로운 내면 세계를 묘사한다.

11. ㉠과 ㉡의 공통적인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적 화자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드러낸다.
- ② 특정 음운을 거듭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얻는다.
- ③ 시상을 매듭 지으며 각 단계의 의미에 긴밀히 대응한다.
- ④ 반복의 효과를 바탕으로 시 전체가 통일감을 갖도록 한다.
- ⑤ 연과 연의 관계를 분명히 하여 시상이 자연스럽게 전개되도록 한다.

12. <보기>를 참고할 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갑 : 차라리 강으로 달려가 물고기 뱃속에 장사 지낼지언정, 어찌 희고 흰 결백한 몸으로 세속의 티끌과 먼지를 뒤집어쓰겠는가?

을 : 강물이 맑으면 내 갯끈을 씻고, 강물이 흐리면 내 발을 씻으리라.

- ① (가)의 화자가 '을'이라면,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가)의 화자가 '갑'이라면, 현실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나)의 화자가 '을'이라면,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유유자적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나)의 화자가 '갑'이라면, 현실에 적응하여 분수를 지키며 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가)와 (나)의 화자가 '갑'이라면, 현실과 이상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3. (다)의 각 단계의 장면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려 할 때, 시적 화자의 시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멀리서 바라본 농촌의 들판을 그리되, 평화롭고 향토적인 분위기가 나도록 한다.
- ② 시골집 방 안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그리되, 노년의 서글픔이 느껴지도록 한다.
- ③ 자연물과 관련된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여 그리움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들판에서 이삭 줍는 여인네들을 그리되, 소박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한다.
- ⑤ 불빛이 새어 나오는 초가집을 그리되,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 들도록 한다.

14. ㉠~㉡ 중 시인이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1~4] 1999 수능				
1	2	3	4	
⑤	②	④	⑤	

[5~9] 2000 수능					
5	6	7	8	9	
②	③	③	③	⑤	

[10~14] 2000 수능					
10	11	12	13	14	
④	④	③	②	⑤	

[1~4]

21세기를 눈앞에 둔 인류에게 **세계화**는 커다란 역사적 전환의 의미를 갖는다. 세계화와 관련된 '무한 경쟁', '국가 경쟁력', '시장 개방'과 같은 논의 또한 개별 국가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제화가 단순히 개별 국가 간의 교류가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면, **세계화는 교류의 양적 확대를 넘어서 개별 국가들의 사회 구조와 국가 간의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세계화라는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개별 국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정의도 그렇고, 세계화와 비교되는 국제화도 전부 '개별 국가'가 어찌고 저찌고 합니다. 그럼 애에 관한 설명이 끝 이 지문의 화제가 되겠네요.

우선 **경제 영역의 세계화**는 국가 간의 교역, 투자, 통신, 교류 등이 확대되어 **상호 의존 관계가 증대되고**, 국제적으로 다자 간의 협의, 조정, 협력이 강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 영역의 세계화에서 최근 주목되는 것은 **초국적(超國的) 금융 자본의 비약적인 성장**이다. 초국적 금융 자본은 1990년대 후반 현재 **세계 무역 거래의 수십 배에 달하는 규모**의 금융 거래를 주도하고 있다. 더구나 그것은 전 세계적 연락망과 전략적 제휴 관계를 통해 **각국의 국민 경제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경제 영역의 세계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추측한대로 이놈이 어떻게 개별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봐야겠죠? 보니까 뭐 상호 의존 관계 커지고, 초국적 금융 자본 서양해서 그게 각국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대요. 별거 없네요. 화제 잡고 보니까 굉장히 편합니다.(지문이 쉬운건 안비밀)

초국적 조직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 또한 세계화의 중요한 측면이다. **기존의 개별 국가 틀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담당하기 위해** 결성된 초국적 조직은 그 중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 국제연합(UN),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정부간 조직 이외에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그린피스(Green Peace) 등과 같은 비정부 조직(NGO)의 비중 또한 커지고 있다.

너무 간단합니다. 초국적 조직의 역할도 중요하다! 왜? '개별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던 것들을 해결해주니까!입니다. 간단하네요. 아까 잡았던 화제 기억하시죠?

한편 **문화 영역의 세계화**도 주목해야 할 대상이다. 문화의 생산, 분배, 소비가 국제적인 차원의 연결망 속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개별 국가들의 문화 및 생활 양식이 전 세계로 신속하게 퍼지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만들어진 뉴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대중 음악,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이 **세계 시장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국에 대한 문화적 종속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아까는 경제 영역의 세계화였고, 이번엔 문화 영역의 세계화입니다. 화제 기억하면서 읽어봅시다(다시 안 말해줄거니까 기억 안 나면 위에 보고오세요 ㅎㅎ). '개별 국가'의 각종 양식들이 전

세계로 퍼진대요. 그래서 그걸 세계 시장을 통해 모두가 이용하고 있구요. 근데 한편으로는 선진국 문화에 종속된다는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쉽네요.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 질서의 급속한 재구조화<'세계화'라는 사실 다 아시죠?>**는 **한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세계화가 우리 삶의 질과 구조를 크게 바꿔 놓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 자본의 세계화와 문화의 세계화**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초국적 금융 자본의 활동은 최근의 외환 위기를 낳았던 주요인 가운데 하나였으며**, 그 결과로 등장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 정책 관리**는 우리 국민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서구의 음식, 의류 문화는 물론 미국 할리우드 영화와 팝 뮤직으로 대표되는 **대중 문화의 유입**은 우리의 일상 의식과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화 유입의 가속화에 따라 우리의 **민족 문화는 급속하게 변형되고 있다**.

앞에서 화제를 잡고 지문을 잘 읽으셨다면 이 지문에서 바로 느낌이 오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계화가, 한국이라는 '개별 국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경제 영역과 문화 영역의 차원에서 모두 살펴보고 있네요. 두 가지 측면에서 세계화를 개별국가와 엮어서 설명하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한국'의 예시를 통해서 쪽 살펴보고 있어요. 처음 읽으셨을 때 이 사고과정을 모두 거쳤다면 구거황이십니다. 못하셨다면 화제를 조금 더 잡고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아직 시간은 많으니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외환 위기, 대중문화 유입 이런 것들을 사례로 들면서 각각 경제, 문화 영역의 세계화를 얘기하네요. 앞에서 빌드업 오지게 짜놓고 팡! 터뜨립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에 대해 우리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화는 기존의 민족 단위로 이루어지던 사회 생활을 새로운 차원으로 재편하는 것이므로**, 우리들은 세계화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민족주의적 시각**을 지녀야 할 것이다. 여기서 개방적 민족주의란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세계화 현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개별 국가 사이의 불평등은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정치, 경제 및 문화적 종속을 거부하고,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그리고 인본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기존의 **국가 이기주의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개별 국가 간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이러한 개방적 민족주의야말로 앞으로 지역적, **지구적 호혜 평등의 질서 수립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 설명하고 한국 예시 설명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하면서 대안 제시하고 있네요. '개방적 민족주의'하십니다. 종속 거부 평등 사랑 별거 없네요.

이 지문은 꼭 사고과정을 한 번 답지랑 비교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문은 정말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제를 생각하는 부분과 화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문의 구조는 굉장히 깔끔하고, 배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꼭 지문 분석이라도 봐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1. ⑤

영 각국의 문화가 유통되고, 한국의 예시를 설명할 땐 민족 문화가 변형된다고 했습니다. 고유한 생활 양식이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라 바뀌는 것이죠.

2. ②

세계화 쪽~ 설명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그럼 세계화를 어떻게 대응해야할까?'하면서 대안(개방적 민족주의)제시합니다. 즉, 세계화를 당연한 것으로 치부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① ??? 개소립니다. 세계화를 대하는 자세로 개방적 민족주의를 제시했을 뿐, 민족주의가 세계화를 지향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 약간의 배경지식이긴 하지만, 민족주의의 개념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국가 간 상호 의존이 증대되는 세계화가 민족주의를 지향한다는 소리가 애초에 모순이라는 점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③ 국가 이념 아닙니다. '전 지구적 호혜 평등의 질서 수립을 위한 기본 조건'인걸요.

④ 이득도 되고 손해도 보고 하는거죠.

⑤ 그럼 문화 종속같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합의 를 통해 세계화를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3. ④

IMF, 할리우드 영화 등 정말 많은 사례들이 제시됩니다.

4. ⑤

세계화를 대하는 자세로 개방적 민족주의를 해야한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네요,

① ? 선진국 시러웃! 빼애애액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화 영역에서 세계화가 각국의 문화를 선진국에 종속시킨다는 부작용도 있다 정도죠.

② ,,,,? 생략할게요..

③ 딱히요? 그냥 애네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된다 정도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초국적 조직 짱짱맨! ㄷㄷㄷ! 이런 건 아니에요.

④ 글쓴이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상의 모든 인간 사회들이 물질적 풍요라는 가치를 추구했을 덕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은 공동체적 유대와 평화로움을 중시하는 칼라하리 사막의 수렵 채집민인 쿵 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최소한의 식욕을 해결하면 각종 놀이와 의례 행위를 통해 정신적인 즐거움과 화목한 사회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쿵 족의 태도는 사바나 생태계에서 경험적으로 체득한 지혜에서 나온 것이다. 즉 이들은 건기와 우기의 생태적 변화 과정이나 먹잇감의 이동 경로, 식용 식물에 대한 지식 등에 기초하여 노동을 배분한다. 또한 자신이 속한 씨족 집단의 구성원들과 생산물·사냥 도구를 공유함으로써 궁핍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응 체계를 발전시켰다. 인간은 생존하기 위하여 우선 먹어야 하지만, 얼마나 먹을 것인가 하는 것은 문화에 따라 다르다.

음 물질적 풍요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는 모든 인간이 추구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야님 쿵 족 보셈! 공유하면서 잘 먹고 잘산다.’ 하면서 사례 가져옵니다. 그거 언급하고, ‘고로 먹긴 해야 하지만, 얼마나 쳐먹을지는 문화마다 다르다(물질적 풍요는 문화마다 다르다)’ 그냥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국 ‘물질적 풍요는 문화마다 다르다’가 핵심 주장이자 화제가 되겠네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무분별한 부의 추구가 한 문화를 완전히 파괴시킨 경우를 아프리카의 유목민인 새홀 족에서 발견할 수 있다. 1920년대부터 인구 증가로 고통 받던 이 부족은 1960년대 중반 평균 강수량보다 많은 비가 내려 목초가 풍부해지자 경쟁적으로 가축의 수를 크게 늘려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날씨가 건조해지자 그들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가축들을 방목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의 터전인 목초지는 서서히 사막으로 변하여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문화적 적응 방식에 담겨 있는 생태 체계와의 조화라는 원리가 개인적인 욕구 추구로 대체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하겠다.

물질적 풍요에 대해서 앞서 언급한 사례와 대조되는 케이스를 또 예시를 통해 설명합니다. 별거 없네요. 사례를 중심으로 읽고 앞이랑 어떻게 다른지 대충 파악만하고 넘어갑시다.

부의 축적이 물질적인 안락함과 편리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많은 인류학자들이 보고하고 있다. <북아메리카의 과퀴틀 인디언은 20세기 초까지 낭비적 소비가 이루어지는 포틀라치라는 축제를 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더 높은 위신과 권위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손님을 초대하여 많은 선물을 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귀중한 재화를 파괴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집을 불태우기도 하였다.> 현대인의 눈에는 낭비적이고 파괴적으로 보이는 이 축제는 자연 자원이 풍부하고 사회적 신분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조건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또한 정치적 위신과 권위를 얻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문화를 통해 부의 분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부의 축적, 즉 물질적 풍요를 이번엔 다른 목적(권위 획득)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또 언급합니다. 사례 빌런이네요. 사례들을 통해 화제와 관련된 점들을 찾으면서 쪽 읽어줍니다.

뉴기니아 마링 족의 대규모 돼지 도살 축제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들 수 있다. 마링 족은 사육하는 돼지의 수가 곧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평소에는 정성껏 돼지를 돌보고 돼지고기를 식탁에 올리지 않는다. 이러한 금기가 깨어지는 것이 <카이코라 불리는 축제 기간이다. 이 축제는 돼지의 수가 늘어나 먹을 것이 부족해지고 노동력이 달려서 돼지를 돌보기 어려워지는 시기에 열린다. 축제가 열리면 평소에 먹기 어려운 돼지고기를 실컷 먹고 동맹 부족의 사람들을 부러 돼지를 선물한다.> 이를 통해 전쟁에서의 동맹 세력을 확보하고, 노동력에 여유를 얻으며 생태계의 균형을 복원한다.

또또 예시... 슬슬 지겹지만! 계속 사례를 통해서 이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점을 상기해봅시다. ‘문화마다 다른 물질적 풍요’라는 화제가, 지금 진짜 부의 축적과 같은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사례와 물질적 풍요 이외의 다른 목적을 가진 사례로 구분됩니다. 이 비교지점 잘 파악합시다!

이상의 사례들은 물질적 풍요의 추구가 한 문화의 중심적 가치가 아닐 수 있고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다양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각 문화의 제도나 관습들이 그 나름의 역사적·경제적·생태적 조건 등을 기초로 발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기준으로 문화의 우열을 정한다든지, 어떤 문화 요소의 좋고 나쁨을 논하기는 어렵다.

재진술이네요. 앞의 내용들 정리하면서 화제 언급합니다.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건 문화마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 평가할 수는 없다(상대적이다)는 내용입니다.

지문 전개 방식이 사실 지금 스타일과 정말 다릅니다. 하지만, 최근 기출에서도 이 ‘사례’들이 여전히 중요해요.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사례를 통해 이해시켜주려고 하기도 하고 그 개념과 제시된 사례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지금 바로 기억나는 건 18수능에 부호화 지문이네요. 아무튼 사례를 통해서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는 것은 결국 화제를 잡고 지문의 흐름을 캐치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연습을 해보기 좋겠다 싶어서 이 지문을 선별했습니다.

5. ②

물질적 풍요라는 것은 문화마다 다르고 그러한 차이는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고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① 정신 문화의 중요성? 헛소립니다.

③ 우리 문화의 고유성이 핵심이 아닙니다. '문화마다 다르다' 이게 중요했어요.

④ 물질적 풍요에 대한 관점은 문화마다 달랐는걸요..? 그것의 고유성이라니 말도 안 되네요.

⑤ 서구적 가치는 드러나지도 않았습디다.

6. ③

문단마다 사례가 나옵니다. 당연히 3번이네요.

① 여러 개념이 드러나지 않았죠?

② 역사적 관점? 변화 과정? 둘 다 아닙니다.

④ 이론적 입장을 대비하는 건 없었어요.

⑤ 유사한 '경험'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순차적으로 밝히는 것도 아니죠. 일단 사례 언급하면서 '물질적 풍요는 문화마다 다르다'라고 박고 시작했으니까요.

7. ③

'과큐틀 인디언'의 사례를 살펴보면 낭비를 하지만, 부의 분배라는 부수적 효과를 수반합니다. 꼭 공중체 존속에 나쁜 것만은 아니네요.

① 화제입니다.

② '새홀 족'의 사례네요. 개인적인 이익만 취하려다 결국 목초지 터지고 망했습니다.

④ '마링 족'은 돼지고기를 실컷 먹으면서 노동력에 여유를 얻고 생태계 균형을 회복한다고 했습니다.

⑤ 마지막 문단에 그대로 나와있죠?

8. ③

윗글의 논지는 문화에 따른 (물질적 풍요에 대한)차이입니다. 즉, 상대적인 태도인데, 3번은 그렇지 않죠. 중, 고등학생들이 이성애 관심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단언합니다. 이성을 좋아할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한 상대적 차이는 고려하지 않고, '당연하다'라는 판단까지 하네요. 틀렸습니다.

9. ⑤

어휘 생략

[10~14]

10. ④

미지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라며 절대 잊을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미 화자가 경험한 공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① 맞죠. 청산에 살겠다!라고 합니다.

② 슈국은 현재 화자가 있는 공간이죠. 가을이 오니 좋다!라고 말하니까요. 마지막에서 '인간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라며 '슈국'에 대한 만족을 드러냄을 알 수 있습니다.

③ 뽕 보고 낙시질도 하고 석양도 보니까 쓰스트트다!라고 하니 충분히 허용 가능합니다.

⑤ '산협촌의 고독한 그림'이라고 했으니, 고독이나 외로움으로 허용 가능하겠네요.

11. ④

여음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혹시 틀렸다면 기본적인 문학 개념어 공부를 추가적으로 병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매 연마다 반복되어 형식적으로 통일감을 주죠. 당연합니다.

12. ③

갑은 속세를 등지고 을은 자연을 즐기네요. 속세를 거부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조금 다르긴 합니다.

(나)는 자연을 즐기고 있는 상황을 노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화자가 을이라면 현실을 등지고 자연에서 유유자적 할 것이라고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① 속세를 등지는데 현실 개혁이라뇨...(가)도 청산을 지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② 개소리내용

④ 현실에 적응하지 않습니다.

⑤ 현실을 등집니다!

13. ②

그냥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묘사하는데 노년의 서글픔..? 아버지라는 대상에 대해 그런 정서를 허용하기에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① 실개천, 황소 등 공간을 전체적으로 묘사하니까 맞는 말이에요.

③ 당연하죠? 과거의 일들을 그리워합니다.

④ 화려하지 않은 누의와 안혜의 모습을 묘사하고 이삭줍는 행동도 드러나니 확실히 허용 가능합니다.

⑤ 초라한 지붕이니 초가집 허용 가능하고 흐릿한 불빛에 도란 도란 거리는 것이니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도 허용 가능하겠습니다.

14. ⑤

나머지는 전부 화자가 좋아하거나 그리워하는 등의 특정 정서나 태도를 드러내는 대상인데, 하늘은 그냥 '공백한 하늘'로 묘사될 뿐입니다.